

남원시민 제안 사업 내년 예산안 반영

주민참여예산제 개편...총 20억 규모 다음달부터 공모 읍·면·동 찾아 제안서 작성 등 교육 '예산학교' 운영

남원시가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 구현에 나섰다.

남원시는 시민 참여도 향상과 의견 수렴 장구다 각화를 모색하는 등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 선정 과정까지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남원시는 시민이 실제 희망하는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총 20억원 규모로 5월부

터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간 대표성을 가진 지역위원회에서 사업을 제안, 선정하다보니 실상 주민의 참여는 쉽지 않았다. 또 전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소규모 시설사업 위주로 제안되는 한계도 지적됐다.

이에 남원시는 시민이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예산 전문 교육기관이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

제안서 작성 및 사업 발굴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교육 기간은 9일부터 5월28일까지다.

발굴된 제안 사업은 새롭게 구성된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의견수렴 장구도 다각화 된다. 시민 제안에 이어 청년공동체 조직 등 다양한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미 있는 제도인 만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이평 만석보·고부천 제방, 유채꽃 만개 9일 정읍시 이평면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만석보'와 고부면 고부천 제방에 유채꽃이 만개했다. 만석보 유채꽃 단지는 18개 농가가 참여해 18.6ha에 이르는 유채군락을 조성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 영농철 일손 적기 적소 투입

4~6월·10~11월 지원창구 운영...독거·장애 농가 우선

정읍시가 봄철 영농기간을 맞아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농촌 일손돕기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정읍시는 모든 공무원과 유관 기관 직원들이 협력해 농번기인 4~6월, 10~11월에 중점 추진하며 특히 기상재해와 병해충 발생 등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적기 적소에 인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우선 농가는 독거 농가, 장애 농가, 기초생활수급자 농가, 과수·채소 등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 기상재해를 입은 농가 등이다.

또 정읍시 농업정책과와 23개 읍면동에서 농촌 일손돕기 지원 창구를 운영해 일손돕기 희망농가

를 조사하고 적기·적소에 자원봉사자를 일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읍농협, 정읍원예농협, 삼골농협 3개소에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해 인력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용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 농가들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직자뿐 아니라 유관기관 참여 독려를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장애인 생활편의 주택개조

12가구 호당 380만원 지원

정읍시가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택 개조를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12가구를 선정해 호당 380만원 한도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장애인의 이동·생활편의를 위한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대지 내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 경사로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 내부 신규 설치 등이다.

희망자는 오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3년 내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지원금을 통해 3년 이내 지원받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신속진단 키트로 병해충 확산 방지

고창군, 고추·수박·멜론 등 10여종 원예작물 진단 서비스

고창군이 14개 읍면 농업인상담소와 함께 진단 키트를 활용한 원예작물 병해충 신속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단키트는 고추, 수박, 멜론 등 10가지 이상의 원예작물에 사용할 수 있으며 토마토 반점위조 바이러스(TSWV, 칼라병),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등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 역병, 시들음병, 선충 등의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는 식물체의 병해충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해서 1~2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진단키트가 개발되면서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2~3분 이내에 확인하고 병해충 확산을 조기에 막을 수 있다.

원예작물 바이러스는 방제할 수 있는 약제가 없고 빠르게 전염되며 농작물의 잎이나 과실에 열룩, 기형, 괴저 등을 유발해 품질과 수량을 떨어트려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특히 최근에는 시설재배지의 연작과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상에 의해 역병, 시들음병, 풋마름병, 무름병, 선충 등의 증가로 원예작물 재배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현행열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도 바쁜 농업인을 위해 직원들이 현장을 찾아 진단해 주



원예작물 병해충 신속진단 키트.

는 현장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병해충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농업인상담소와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기업 인·허가 민원 신속 처리

행정 처리단 운영

남원시가 기업이 느끼는 행정의 높은 문턱을 해소하고자 '기업민원 신속 처리단'을 본격 운영한다.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은 기업의 공장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등 각종 애로사항을 중점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순택 남원시 부시장이 단장을 맡는다.

기업지원과, 건축과, 환경과 등 인허가 및 기업 지원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8개 과, 12개 팀이 참여한다.

처리단 업무 핵심은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이

다. 투자 기업에게 인·허가 관련 사전컨설팅 지원은 물론 법정처리기간 50% 경과 전 보완 요구, 법정 보완 기간 초과 자제, 보완 전제 공장 설립 인·허가 조건부 승인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현장(방문)클리닉을 통해 전문가 상담도 추진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는 '1기업 1공무원' 매칭, 현장(방문)클리닉,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등 기업 맞춤형 민원 해결을 통해 기업들이 남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신속 방제

예찰단 운영... 지난해 23건 조치

남원시가 건강한 소나무림을 보존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단을 운영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남원에도 매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됨에 따라 지난 3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해 피해목 벌채·훈증 및 예방나무주사 작업을 실시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될 경우 100% 고사하기 때문에 의심목 예찰을 통한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산림예찰을 위해 예찰단 4명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652건을 전북산림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고 23건의 감염목이 발견돼 조치에 나서는 등 의심목 예찰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시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예찰활동을 위한 산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나무류 이동시 감염여부 확인 및 생산확인표 발급은 필수인 만큼 적발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신문 읽는 오늘
더 지혜로운 내일

지식을 넘어 지혜로 -
정보를 넘어 경쟁력으로 -
오늘 읽은 당신의 신문이
내일을 앞서가는 힘이 됩니다.